

2월2일(월)

제목: 사랑은 이해심에서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찬송:28장/요한복음13:31-3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론가 떠나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33,34절)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같이 제자들이끼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심’에서 비롯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 받고 십자가를 질 때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을 이해하셨으니 다시 받아주신 것이다. 또 세 번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도 이해하셨으니 다시 받아주신 것이다. 가롯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나약한 그를 먼저 이해하신 까닭이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매번 인간에 대한 이해심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생활해보면 그 사람의 번덕심, 괴팍성, 불성실을 금방 알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이해한 것처럼 너도 그를 이해하라 하신다. 사랑은 이해심에서 비롯된다. 상대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면 우선 미워하는 감정은 막을 수 있다.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잘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처지를 공감하는 능력이 취약한 증거이다.

2월3일(화)

제목: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사도신경/찬송:161장/요한복음13:36-38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곧 이 세상에 없을 터인데 너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 올수 없다” (36절)하시자 베드로는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내가 어찌 당신을 따를 수 없다 합니까? 나는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37절)라고 말했다. 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걸작이다. “너는 닭 울기 전 나를 세 번 부인 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확신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의 요지는 이렇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정말 그럴까? 네 느낌이 정말 그러느냐? 네 뜻이 정말 그러하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너는 곧 나를 부인 한단다” 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는 내가 아무리 큰소리치며 결단해도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늘 간파하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나를 매번 믿어주시고, 매번 받아주시고, 매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2월4일(수)

제목: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사도신경/찬송:141장/요한복음14:1-6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니(2절) 도마는 어느 도로로 가시냐고 물었다(5절) 이 때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다.” (6절) 정말 그가 길인가? 우리가 낯선 곳에서 길을 물었는데 안내자가 “1분쯤 직진하다가 좌회전하고 또 가다가 우회전하고 또 가다가 30도로 꺾고 1분쯤 가다가 U턴하라” 하면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만일 그 안내자가 “따라오세요” 한다면 그는 우리의 길인 것이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시다. 이 길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100% 간다. 또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물리를 배우는 학생은 가르치는 교사의 인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는 다르다. 순결을 가르치는 바람둥이나 겸손을 가르치는 오만한 자의 도덕 강의는 효력이 없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기에 조금도 흠이 없으신 진리 그 자체이시다. 그의 삶을 아는 모든 사람은 그가 진리 자체임을 믿는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첫 생명(출생)도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영생)까지도 주실 바로 그 생명자체이시다.

2월5일(목)

제목: 내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찬송:37장/요한복음14:7-15

예수님은 자기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고(9절)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다 하셨다(10,11절) 또 예수님은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다.(13,14절)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는 하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 응답된다고 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성도들 중에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그렇다. 어떤 성도는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 예를 들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 개인적인 출세를 바라는 기도, 남보다 뛰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일확천금을 달라는 기도가 그것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 내용인지,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 내용 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며 기도를 마친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진정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다.

2월6일(금)

제목: 성령님께 비워드려야 합니다.

사도신경/찬송:34장/요한복음14:16-17

예수님은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16절)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킨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청함 받은 자’ (파라클레토스)이다. 어려운 상황 하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청함 받은 전문가,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청함 받은 변호사 그가 곧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님이시다. 그러나 이 파라클레토스를 청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볼 수 없다.(17절) 믿는 성도에게 성령님은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지만(17절) 그분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그는 가지 않는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활동과 역할을 우리가 간절히 청할 때 그는 더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불완전과 곤고를 잘 처리하여 주신다. 우리는 매일 매일 성령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그를 기다리는 시간을 별도로 우리 삶 가운데서 설정해 놓아야 한다. 이 성령님은 인격적 이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만큼 역사하신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